

(7) 가타오나미 공원 만엽의 길 (제 7 권 1215 번 · 제 7 권 1217 번)

【시비 내용】

(오른쪽 시) 타마츠시마 요쿠미테이마세 아오니요시 나라나루 히토노 마치토와바이카니

(왼쪽 시) 타마츠시마 미테시요케쿠모 와레와나시 미야코니유키테 코이마쿠 오모에바

【해설】

시비 오른쪽에 새겨진 시는 만요슈(만엽집) 제 7 권에 실린 시(1215 번 시)입니다. 시비 왼쪽에 새겨진 시는 만요슈 제 7 권에 실린(1217 번 시)입니다. 진키원년(724)에 쇼무텐노(천황)는 키노쿠니(와카야마현)타마츠시마를 찾아옵니다. 이 두 시는 그 시기에 읊어졌다고 추정됩니다. 작자는 알 수 없습니다. 오른쪽 시 의미는 “나라의 수도에서 당신의 귀환을 기다리는 분이 “타마츠시마는 어땠습니까?”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에 제대로 답할 수 있게 이 아름다운 타마츠시마의 풍경을 충분히 보시고 가시기바랍니다”입니다. 주변에 바다가 없는 나라 수도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타마츠시마의 바다 풍경은 최고의 선물이 되었을 것입니다.

왼쪽 시는 타마츠시마의 멋진 풍경을 눈앞에 두고 그 감동을 읊은 시입니다.단 그 마음을 솔직하게 노래하지않고 “타마츠시마의 풍경을 봤지만, 좋은 일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”라고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읊고 있습니다. 왜 그렇게 생각하냐하면 “도시에 돌아가면 다시 한 번 보고싶다고 생각해도 다시 이 풍경을 눈앞에서 볼 수 없기때문이라서 입니다” 라고 합니다.

시비의 문자는 야마모토 마후네 씨의 필적입니다.